

석사학위논문

복음주의 구원론 연구

-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수 민

2001년 12월

# 복음주의 구원론 연구

-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연구 -

지도교수 이 선 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2월 일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김 수 민

김수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_\_\_\_\_

부심위원 \_\_\_\_\_

부심위원 \_\_\_\_\_

2001년 12월 일

목원대학교대학원

## 감사의 글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논문을 쓰는 동안 성심 성의껏 지도해 주신 이선희 교수님과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심사를 해 주신 임동원 교수님, 박노권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종을 늘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논문을 쓰는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며 뒷바라지 하느라 무척 수고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주하와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아버님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2월

김 수 민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 . . .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 .	2
제2장 본 론	
제1절 루터의 구원론 . . . . .	4
1. 중세교회의 구원론 . . . . .	4
2. 루터의 구원론 . . . . .	6
가. 구원의 개념들 . . . . .	6
나. 이신칭의 . . . . .	10
다. 성화 . . . . .	16
제2절 칼빈의 구원론 . . . . .	18
1. 예정(Predestination) . . . . .	18
2. 원죄(Original Sin) . . . . .	20
3. 소명(Calling) . . . . .	22
4. 중생(Regeneration) . . . . .	24
5. 믿음(Faith) . . . . .	25
6. 회개(Repentance) . . . . .	26
7. 칭의(Justification) . . . . .	27
8. 성화(Sanctification) . . . . .	28
9. 견인(Perseverance) . . . . .	29
10. 영화(Glorification) . . . . .	31
제3절 웨슬리의 구원론 . . . . .	32
1.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 . . . . .	32
2. 원죄(Original Sin) . . . . .	34

3. 선행의 은혜(Preventing Grace) . . . . .	36
4. 죄를 확신시키는 은혜(Convincing Grace) . . . . .	36
5. 칭의하시는 은혜(Justifying Grace) . . . . .	37
6. 성화시키시는 은혜(Sancitifying Grace) . . . . .	40
7. 영화(Glorification) . . . . .	43
제4절 비교 . . . . .	44
1. 공통점 . . . . .	44
2. 차이점 . . . . .	53
제3장 결 론	
제1절 결 론 . . . . .	60
제2절 제 언 . . . . .	61
참고문헌 . . . . .	63
Abstract . . . . .	6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동기와 목적

최근에 ‘한국복음주의신학회’(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sup>1)</sup>라는 초교파적인 모임이 구성되어 작년 2000년도에 “새 천년과 복음주의 신학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35차 논문 발표회가 있었다. 이런 연구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복음주의의 정체성과 새 천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장로교나 성결교, 침례교 등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논문발표가 있었지만 감리교를 대표하는 논문발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감리교 내에서도 복음주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최근에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복음주의가 시대적인 필요에 가장 부합되는 운동이라고 보는 경향성이다. 목창균 교수에 의하면 복음주의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요소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자유주의 교회는 침체 속에 있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미국에서 급성장한 500개 개신 교회 중 89%가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였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미래가 복음주의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결코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sup>2)</sup> 둘째는 복음주의가 성경적인 운동이라는 신뢰 때문이다. 맥그라스에 의하면 복음주의의 특징이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성령의 주권, 개인의 회심, 복음전도, 교회의 중요성이라고 한다.<sup>3)</sup>

---

1) 한상화,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제35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집』 2000, p. 41.

이 단체는 복음신앙의 정신으로 1972년부터 조종남 박사, 오병세 박사, 김의환 박사, 한철하 박사등 네 사람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가 1981년 재조직되어 보수신학의 연합전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목창균, “복음주의란,” 『온세상 위하여』 (경기: 오메가선교회, 2000, 4월호), p. 26.

3) 알리스트 맥그라스,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신상길, 정성욱 공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p. 61.

복음주의는 복음신앙을 그 중심에 두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세째로 복음주의는 여러 교파를 포괄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는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터, 칼빈, 침례파, 웨슬리를 믿는 교파를 포괄하는 커다란 운동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포용력 때문에 복음주의야말로 교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복음주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논자는 복음주의 연구 중에서 구원론에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구원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구원론에도 서로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차이에 불과하고 더 큰 공통점과 합일점들이 복음주의 구원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구원론은 종교개혁정신에 입각한 성경적 구원론으로 인간의 전적타락과 무능력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의한 칭의와 성화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 복음주의의 대표적 신학자들인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복음주의 구원론의 가장 큰 줄기는 역시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이다. 이 세 사람은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구원론의 뼈대를 세운 사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이 세 사람의 신학적 입장을 살펴보고, 비교 연구하여 복음주의 구원론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각 똑같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루터의 구원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중세교회의 구원론을 살펴봄으로써 루터의 구원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구원론이 집약되어 있는 “로마서를 위한 서문”과 그의 논문 “크리스찬의 자유”를 통해서 루터의 구원론의 개념들과 내용들을 살펴 볼 것이다. 칼빈의 구원론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의 설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구원의 순서와 개념들과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세 사람의 구원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복음주의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제2장 본 론

### 제1절 루터의 구원론

복음주의 구원론의 체계화가 시작된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에서부터이다.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교권과 왜곡된 성경해석으로 인해 가려진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이신칭의’를 발굴해 내었다. 루터가 되찾은 ‘이신칭의’ 교리 위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복음주의신학의 뼈대가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루터의 구원론은 복음주의 구원론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루터의 구원론이 형성되는데 원인을 제공한 중세교회의 구원론을 살펴보고 루터의 구원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중세교회의 구원론

루터의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중세교회의 구원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가 처음에 중세교회의 수도승이었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세교회의 구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세교회에서는 구원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창 1:26에 근거하여 형상(imago) 과 모양(similitudo)을 지녔다고 한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로 인해 모양(similitudo)과 원의(原義)를 상실하고, 약간의 손상된 형상(imago)만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락 이후의 형상(imago)은 성례전을 통한 은혜로 사죄함을 얻고 상실된 모양(similitudo)과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를 다시 얻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sup>4)</sup>

인간의 전 구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은 인간의 죄를 훨씬 능가하고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

4) 이형기, 「세계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 572.

의 공로와 보상은 그리스도께 필요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돌려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사죄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선행을 통한 보상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잉여공로’에다가 약간의 공헌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모든 구원의 은혜의 시작과 완성은 선행하는 은혜와 인간의 협조로 이룩된다고 본다.<sup>5)</sup>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온 인류를 위한 충족한 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공덕뿐만 아니라 성자들의 공덕, 그리고 개개인의 공덕과 병합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성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공덕을 행했기 때문에 여분의 공덕이 있고 이것을 쌓아둔 창고(treasury of merits)가 있다고 하여 면죄부 판매의 신학적 근거를 마련했다.<sup>6)</sup> 중세 교회에서는 사제들의 면죄특권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면죄(indulgence)는 이미 사함 받은 죄로 인하여 받는 일시적 형벌(temporal punishment)에 대하여 교회로부터 면죄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죄로 인한 상처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시적 형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일시적 형벌을 받는 곳이 연옥(purgatory)이다. 연옥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케 하고 죄로 인한 불결을 정화하며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다. 면죄는 형벌을 사하며 연옥에서의 정화과정을 면케하는 것이다. 교황의 면죄특권은 교회의 영적창고(spiritual treasury of the church)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충족, 마리아 또는 성자들의 완벽한 삶, 그리고 순교자들의 잉여공덕 창고에 쌓인 성자들의 공덕을 회사함으로써 연옥에서의 일시적 형벌이 제거된다고 보았다.<sup>7)</sup>

그리고 중세교회는 인간의 행위 공덕으로써 일곱 가지 성례전을 강조한다. 교회의 올바른 성례는 수혜자가 영적 방해를 가하지 않는 한 수혜자에게 은혜를 실어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에 관계없이 교회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 자체

---

5) Ibid., p. 573.

6) 윌리엄 C. 플레처, 「기독교신학사」, 박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p. 246.

7) 김기련, 「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출판부, 2001), p. 40.

로써 구원하는 은혜에 족하며, 작용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곱가지 성례전은 성체(Lord's Supper), 세례(Baptism), 고해(Penance), 견진(Confirmation), 혼배(Marriage), 신품(Ordination), 그리고 종부(Extreme Unction)를 말한다. 성례전이 영적이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성세(세례)는 거듭남, 영적 생명의 부여, 견진은 영적 생명의 강화, 성체는 영적 생명의 양육, 고해는 죄로 인해 영적 생명이 상실될 때 그것의 회복, 종부는 영혼의 치유, 때로는 육체의 치유, 신품은 교회 치리자들을 세우고, 혼배는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자녀의 생산, 선택된 자들로 채워지는 하늘나라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sup>8)</sup> 중세 교회는 성례를 은혜를 받는 통로로 또는 객관적 실재로 본 것이다.

## 2. 루터의 구원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구원론을 따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을 ‘어거스틴 수도회의 탐상 경험’이라 하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한 체험이다.<sup>9)</sup>

### 가. 구원에 관련된 개념들

루터의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루터가 정의하는 구원에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루터는 그 개념들의 정의를 “로마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0)</sup>

#### 1) 율법

---

8) 폴 앤스, 「신학 핸드북」, 최치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578.

9) 김기련, op. cit., p. 103.

10) Martin Luther, “로마서를 위한 서문”, 「루터와 신학(II)」,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p. 43.

루터는 ‘율법’을 인간의 법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율법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슨 일은 행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은 행할 수 없다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법은 속마음에 상관 없이도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깊은 속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행해지지 않는 행위를 위선과 거짓으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의 외적 행위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롬3:10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두려워하거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에서 율법을 외적인 행위로 지키기는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율법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없이 억지로, 강정에 못 이겨 마치못해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을 미워하게 되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율법을 수행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사랑으로 경건하고 선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신앙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sup>11)</sup>

## 2) 신앙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며, 신앙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하게 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을 임하게 한다는 것이다. 성령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신앙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곧 신앙으로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이다.<sup>12)</sup>

신앙은 인간적인 관념과 꿈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에게서 새로 나게 하며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신앙은 옛 아담을 죽이고, 마음과 영과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 전혀 새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고 신앙

---

11) Ibid., p. 44.

12) Ibid., p. 46.

은 이와 함께 성령을 임하시게 하며, 살아있고 분주하고 활동적이고 힘찬 것이며 끊임없이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13)</sup>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모험적이고 생생한 확신이라고 말한다. 어찌나 확고하고 부동한지 신자는 그의 생명을 뒤흔 번이고 거기에 건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러한 지식과 확신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대담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성령께서 신앙 가운데서 행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이런 신앙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고 기꺼이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모든 것을 참음으로 신앙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14)</sup>

신앙의 열매와 행위들은 곧 화평, 기쁨,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에 대한 사랑, 환난과 고난 중에서의 신뢰, 확신, 담대함, 용기, 소망 등과 같은 것들이다. 신앙이 참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넘치는 선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뒤따른다는 것이다.<sup>15)</sup>

### 3) 죄

성경에서의 죄는 육신의 외적인 행위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들도 뜻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능력을 가진 가장 깊은 내심을 말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다. 불신은 모든 죄의 뿌리와 수액과 주동력이라는 것이다.<sup>16)</sup>

### 4) 은총

루터가 이해하는 은총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좋은 뜻이나 호의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의에 의해 우리에게

---

13) Ibid., p. 48.

14) Ibid.

15) Ibid., p. 52.

16) Ibid., p. 47.

그리스도를 주시고 싶어하시며, 또한 은사로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싶어하신다. 은사와 성령은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해지나 아직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은사들처럼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의 중재자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육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따지시거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7)</sup>

#### 5) 의

루터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 의를 ‘하나님의 의’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 의를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 간주하시며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신앙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기쁘게 여기게 되며,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명예를 돌리고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본성과 자유의지와 우리 자신의 능력은 이러한 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8)</sup>

#### 6) 육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육으로 난 모든 것을 다 ‘육’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몸과 영혼과 정신과 감각 등 전인간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이 육을 갈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상한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가르치고 말하면서도 은총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역시 ‘육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육’은 육적인 이득과 현세적인 생을 위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살고 일하는 사람인 것이다.<sup>19)</sup>

---

17) Ibid., p. 47.

18) Ibid., p. 49.

19) Ibid.

## 7) 영

루터는 말하기를 가장 외적인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을 ‘영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에 그러하셨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에 그러했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영’ 성령과 내생을 위하여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살고 일하는 사람이다.<sup>20)</sup>

루터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루터의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루터의 구원론을 말할 수 없다.

### 나. 이신칭의

루터는 그의 논문 “크리스찬의 자유”에서 “오직 믿음이 행위 없이, 의롭게 하며, 자유케 하며, 구원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한다.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중세교회의 구원론에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전가라는 개념을 이끌어 낸다. 인간 구원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 ‘이신칭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의 자유”에 나타난 루터의 칭의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터는 먼저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신앙을 쉬운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덕행(德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sup>21)</sup> 이 말은 신앙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종교적, 윤리적 수준의 성화로 보았다는 말이다. 당시 중세교회의 구원론의 신앙에 대한 지적이다.

루터는 크리스찬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두 명제를 든다.

---

20) Ibid.

21)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종교개혁의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3), p. 294.



1.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主)이며 아무에게도 예속하지 않는다.
2. 크리스찬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從)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한다.<sup>22)</sup>

첫째 명제는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성경에 인간의 인생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 즉 구원, 지혜, 의 등의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명제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완전히 구원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내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승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고행하는 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위해 공적을 쌓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이제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루터는 크리스찬의 두 가지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영적이며 육체적인, 이중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을 먼저 설명한다. 사람들이 영적인 본성에 의하면 영적, 내적, 새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사람들이 육체적인 본성에 의하면 그는 현세적, 외적, 옛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동일한 사람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sup>23)</sup>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루터는 의롭고 자유롭고 경건한 크리스찬 즉 영적이고 새롭고 내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는 어떤 종류의 행위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외적인 것이 크리스찬의 의와 자유를 만들어 낸다든지 불의나 노예적인 신분을 만들어 내는 데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sup>24)</sup>고 전제한다.

---

22) Ibid., p. 295.

23) Ibid., p. 296.

24) Ibid.

크리스찬의 생활과 의와 자유를 위하여 단 한 가지만 필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밖에 다른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영혼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면 영혼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 진리, 빛, 평화, 의, 구원, 기쁨, 자유, 지혜, 능력, 은총, 영광 및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25)</sup>

그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압축되어지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그 설교를 믿는 한 영혼을 먹이고 의롭게 하며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려는 것이며, 신앙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하고 구원하는 용법이라고 설명한다. 영혼이 그의 생명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의롭게 되는 것도 신앙만으로 된다는 것이다.<sup>26)</sup> 이것을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구원 즉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이 신앙은 공적과 관련하여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이 말씀을 받아들여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순간 인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혀 수치스럽고 죄 되며 저주받을 것들임을 알게 되며 비로소,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신앙에 의하여 새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sup>27)</sup>

루터는 이 신앙이 로마서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10절)고 하는 것처럼 오직 내적인 사람 안에서만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신앙만이 의롭게 하는 것이므로 내적인 사람은 전혀 어떤 외적인 공적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자유롭게 되거나 혹은 구원받을 수 없고 선행의 그 성격과 상관 없이 내적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반면 인간을 죄 되게 하고 죄의 저주받을 종이 되게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직

---

25) Ibid., p. 297.

26) Ibid., p. 299.

27) Ibid.

마음의 불경건(不敬虔)과 불신(不信)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첫째 관심사는 선행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외의 다른 어떤 일도 크리스찬이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며 인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비할 바 없는 보물이라는 것이다.<sup>28)</sup>

루터는 신앙만이 크리스찬이 되는데 필요하며 모든 외적인 행위는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많은 행위와 의식과 율법이 규정되었는데 어떻게 신앙만이 의롭게 하며 공적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이것에 관해 루터는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구약에 해당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신약에 해당하는 약속이다. 계명은 선한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행할 힘은 주지 않는다. 계명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따르다가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계명을 통해 무력함을 깨닫고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심하게 될 때 겸비하게 되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성경의 둘째 부분인 약속이 돕게 된다는 것이다. 약속은 “만일 네가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율법을 완수하고 탐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와서 그 안에서 은총, 의, 평화, 자유 및 모든 것이 너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으라. 만일 네가 믿으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나 믿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고 말한다는 것이다.<sup>29)</sup> 즉 율법이 명령하는 바 사실상 전혀 무용한 많은 선행을 완수하려고 노력함으로써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신앙으로는 빠르고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주며, 또한 계명 자체와 계명의 완수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율법이 규정한 것을 완수한다는 것이다.<sup>30)</sup>

루터는 공적 없이 신앙만에 의하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

28) Ibid., p. 300.

29) Ibid., p. 302.

30) Ibid., p. 303.

거룩하게 되며 참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고 모든 축복으로 충만케 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이른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신앙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며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아무 선행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한다.<sup>31)</sup>

또한 루터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딤펴전1:9)라는 말씀을 참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 크리스찬의 자유는 우리를 게으름이나 사악함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의와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나 공적이 필요치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신앙의 첫째 능력이라고 말한다.<sup>32)</sup>

루터는 신앙의 둘째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의로 여김을 받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신앙으로 그에게 당연히 돌려야 할 큰 존경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진실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그 큰 명예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는 것이다.<sup>33)</sup> 신앙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그에게 드림으로 진리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의를 명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삼상 2:30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는 말씀을 들고 있다.<sup>34)</sup>

루터는 신앙의 셋째 이득으로 신앙은 영혼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5)</sup>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한데 이것이 결혼을 통해 영혼의 것이 되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죄와 죽음과 멸망을 이기셨다는 것이다. 믿는 영혼은 신앙을 담보로 하여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며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36)</sup>

루터는 신앙이 첫째 계명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

---

31) Ibid., p. 304.

32) Ibid.

33) Ibid.

34) Ibid., p. 305.

35) Ibid., p. 306.

36) Ibid., p. 308.

나눔에게 당연히 돌려야 할 진실과 모든 선의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선행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음에 지닌 신앙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며 그가 진실하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만이 크리스찬의 의와 모든 계명의 완수라는 것이다.<sup>37)</sup>

루터는 내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은총을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한 맏아들 즉 장자이시기에 진실한 왕과 제사장이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장자권으로 두 가지 특권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한 것을 무엇이나 다 소유하는 상술한 결혼의 법칙에 따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분여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분담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요 왕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뵤전2:9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하는 것과 같다. 크리스찬은 신앙으로 모든 만물보다 더 높여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빠짐없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어 아무 것도 그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만물은 그에게 예속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믿는 자는 왕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이다.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서로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러나 만일 어떤 선행으로써 의롭고 자유롭게 되며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신앙과 신앙에 따르는 이득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한다.<sup>39)</sup>

루터는 그리스도의 업적과 삶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처세를 위하여 충족스러운 것인 양 역사적인 사실로만 설교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거나 크리스찬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구원받

---

37) Ibid., p. 309.

38) Ibid., p. 313.

39) Ibid., p. 314.

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sup>40)</sup> 먼저 율법을 알게 해서 죄와 죽음의 공포를 알게 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극복되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신앙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sup>41)</sup>

#### 다. 성화

루터는 내적인 사람에 이어 외적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만일 신앙이 모든 것을 행하고 단독으로 의에 이르기엔 충분하다면 왜 선행이 명령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루터는 선행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현실가운데 사는 한 우리는 미래에 있을 완성을 행해서 나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인간은 영에 있어서 신앙에 따라 내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충분히 의롭게 되는 고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기는 하나, 이 신앙과 이 부는 내생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sup>42)</sup> 또한 루터는 우리의 육체는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며 다스리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수가 없다고 말한다.<sup>43)</sup>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공적을 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신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선행이 몸을 복종하게 하고 몸의 악한 정욕을 깨끗케 하며 우리의 모든 목적이 다만 정욕을 내쫓는 데만 지향하도록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4)</sup>

루터는 말하기를 “믿는 자의 선행은 이와 같은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그는

---

40) Ibid., p. 315.

41) Ibid., p. 317.

42) Ibid., p. 319.

43) Ibid.

44) Ibid., p. 320.

낙원에 되돌아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며, 의롭게 되거나 의롭기 위하여 선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지 않고,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보존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자유로이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sup>45)</sup>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다시 지음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에 의해 증진된다고 말한다.<sup>46)</sup> 즉 인간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증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말하기를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그리고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였다.<sup>47)</sup> 또한 믿음 없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이 선행을 낳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의지함으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이 공적만을 내세운다면 믿음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상태의 인간을 의롭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믿음 없는 선행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고 말한다.<sup>48)</sup> 크리스찬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율법에서 해방 받고 모든 것을 순수한 자유에서 자유로이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떤 행위나 율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고 어떤 이득이나 구원을 얻어보려고 힘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49)</sup>

그리고 이 선행의 기준은 믿음의 근거인 말씀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어 섬기는 사랑을 하셨으므로 인간도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웃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어 더 이상 인

---

45) Ibid., p. 322.

46) Ibid.

47) Ibid.

48) Ibid., p. 323.

49) Ibid., p. 324.

간의 삶의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음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제2절 칼빈의 구원론

루터가 구원론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했다면 칼빈은 구원의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했다. 특히 칭의와 성화가 모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구원론을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1. 예정(Predestination)

칼빈은 예정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이 이웃(하나님의 선하신 뜻)말고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유기에 처하셨다.<sup>50)</sup>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으심으로써 그들을 고귀하게 만드셨고,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이들의 마음을 조명하심으로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생명을 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고의로 믿지 않으므로 어둠 속에서 믿음의 빛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이다.”<sup>51)</sup>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의해 개인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기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예정에 관한 칼빈의 진술은 그가 선택과 유기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간주하고 있다.<sup>52)</sup> 칼빈은 그 근

---

50) John Calvin,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 79.

51) Ibid., p. 80.

52) 유태주, “칼빈의 구원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최



거로 에베소서 1장 9절을 들고 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고려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다.<sup>53)</sup> 알미니안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조건이나 동인으로서 인간의 의지의 적극적인 행위에 근거를 둔 예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선택이 무조건적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 또는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인간 편에 어떤 적극적인 의지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54)</sup>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삼으시는 섭리를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즉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도록 섭리하시지 아니 하셨다면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sup>55)</sup>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해석한다. 즉 우리들이란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수단을 사용하여 구원의 소망으로 부른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삼은 자들이며, 당신의 영원하고 알 수 없는 경륜을 따라 당신의 아들로서 호적에 입적시킨 자들을 말한다고 한다.<sup>56)</sup> 즉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신앙을 고려하여 그들을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되었으며 믿음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그들이 무슨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sup>57)</sup> 다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불리움을 받았다”(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

---

근 동향”, 「최근의 칼빈연구」, 한국칼빈학회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p. 215.

53) John Calvin,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 p. 100.

54) Deuan Spanser, 「칼빈주의 5대교리」, 신청기 역 (서울: 성도출판사, 1981), p. 54.

55) John Calvin, 「칼빈의 예정론」, op. cit., p. 101.

56) Ibid.

57) Ibid., p. 101.

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29~30) 칼빈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sup>58)</sup>

칼빈은 어거스틴의 예지(foreknowledge)의 개념을 받아들여 예지란 단순히 장래의 사건을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the counsel of God)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계획에 의하여 당신의 소유된 자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신다고 보았다.<sup>59)</sup> 칼빈은 그 성경적 근거로 행2:23; 롬11:2;<sup>60)</sup> 롬11:5; 롬11:7을 들고 있다.<sup>61)</sup>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정론의 근거로 요6:37절을 들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세 가지 사실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모든 자는 사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들은 아주 그의 소유가 되도록 아버지의 손에서 그의 손을 넘겨진 자들이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자들에 대하여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다.<sup>62)</sup>

## 2. 원죄(Original Sin)

칼빈은 아담의 죄를 탐욕으로 인한 무절제로 보지 않고 성 어거스틴이 발견한 이기적인 자애보다 자만으로 형성된 불신으로 보았다.<sup>63)</sup>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의 순종여부를 시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와가 불신앙으로

---

58) Ibid., p. 102.

59) Ibid., p. 103.

60) Ibid., p. 104.

61) Ibid., p. 105.

62) Ibid., p. 105.

63) Fransis Wendel, 「칼빈의 신학서론」, 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 303.

인해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린 것을 보면, 타락의 시작이 불순종에 있었다고 보았다.(롬5:19)<sup>64)</sup>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 것은 사탄의 꾀술에 빠져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은 사라지고, 따라서 불신이 타락의 뿌리가 된다. 그 후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경시하여 배은망덕과 함께 야심과 교만이 생겨났다는 것이다.<sup>65)</sup>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적 생활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미덕, 거룩함, 의, 진리 등과 같은 것 대신, 악질, 전염병, 맹목, 허약, 허영, 불순, 불의 등이 온 것이다. 이 심판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sup>66)</sup> 또한 이 심판과 함께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무력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한 오염이 인류전체의 본성에 미쳤다고 보았다.

칼빈은 원죄에 대해 정의하기를 원죄는 우리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으며,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져서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에서 ‘육체의 일’(갈5:19)이라고 부른 행위를 우리 안에서 생기게 한다고 말한다.<sup>67)</sup>

칼빈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보았다. 즉 전적타락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라 자연적 은사는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 은사는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고 보았다. 즉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성인 자연적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68)</sup> 다만 그것은

64) John Calvin, 「한·영 기독교강요」(II), 번역위원회 역 (서울: 기독교문물출판사, 1996), 제2권. 1장. 4절.

65) Ibid.,

66) Ibid., 2권. 1장. 5절.

67) 이양호,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28.

68) Ibid., p. 129.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부분적으로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았다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 본성 안에 진리를 탐구하려는 일종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둔하여 바른 길을 견지하지 못하고 길을 잃고 사라져 버린다고 말한다.<sup>69)</sup>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적 부패는 절대적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부패는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최악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전적 부패는 인간적인 선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70)</sup>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선한 사람들도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적인 부패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일은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이 영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sup>71)</sup>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나 생각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중생하여 새 영을 받기 전까지는 사단의 종이라는 것이다.<sup>72)</sup>

### 3. 소명(Calling)

칼빈은 소명을 선택의 증거라고 말한다.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함께 듣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택을 완전히 증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이다.(요6:45)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부르심으로써 가족 안에 받아들이시고 자신과 연합하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은 부르심과 선택이 연결될 때, 이 일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긍휼 이외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소원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

---

69) Ibid., p. 130.

70) Deuan Spanser, op. cit., p. 43.

71) Ibid., p. 44.

72) Ibid., p. 45.

님의 복의 도움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 일에서 그 의미가 부여된다고 말한다.<sup>73)</sup>

또한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이며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이라고 말한다.(사65:1)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인애가 거저 주시는 것임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임해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악인들에게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내적인 부름은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말한다. 부르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만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4)</sup>

그러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켜서 믿음에 의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선택은 의심스럽고 효력 없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75)</sup>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천부께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sup>76)</sup>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사 그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품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그가 돌보시며 보호하신다. 그가 받아 주시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고, 영생을 얻도록 보호하게 하셨다고 말한다.(요 6:37, 39;17:16,12)<sup>77)</sup>

---

73) John Calvin, 「한·영 기독교강요」(Ⅲ), 번역위원회 역, 24장. 1절.

74) Ibid., 1장. 2절.

75) Ibid., 1장. 3절.

76) Ibid., 1장. 5절.

칼빈은 그리스도의 백성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멸망으로 직행하는 것은 매일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서도 “멸망의 자식”만은 제외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매달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요3:16, 6:39)<sup>78)</sup>

칼빈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들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즉 일반적인 소명과 특수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외면적인 복음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부르시는 것이다. 특수한 소명은 개별적인 것이며 대개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다. 초청은 악인들에게도 공통된 것이지만, 선택은 중생의 영을 수반한다고 보았다.<sup>79)</sup>

#### 4. 중생(Regeneration)

칼빈은 회개<sup>80)</sup>를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고후3:18, 엡4:23, 골3:10)<sup>81)</sup>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중생에 의해서 아담으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순간이나 하루나 한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 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케 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들로서 자기에게 성별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82)</sup>

---

77) Ibid., 1장. 6절.

78) Ibid., 1장. 7절.

79) Ibid., 1장. 8절.

80) 여기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움을 뜻하는 넓은 의미의 회개를 의미한다.

81) Ibid., 3장. 9절.

82) Ibid.,

칼빈은 생각하기를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육신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전연 느끼지 않으리만큼 충분히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에게에는 악을 유발시키는 불씨가 남아 있어서 욕망이 끊임없이 튀어나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자극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어떤 욕망에 충동되기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 즉, 욕망을 생기게 하는 부패성 자체를 죄로 부른다.<sup>83)</sup>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 약속을 실현하심으로 교회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죄의 본체보다도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그들 속에서 죄의 힘을 파괴시키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죄는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그것이 신자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롬7:6)<sup>84)</sup>

## 5. 믿음(Faith)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은 단순히 복음서에 대한 평범한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sup>85)</sup> 또한 믿음은 무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맹목적인 믿음’을 비판한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워 소개되면, 무분별하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sup>86)</sup> 그러나 신앙의 준비단계에서의 맹목적인 믿음을 인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록 복음의 교훈에 조금도 감화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단지 기적으로 인한 경이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약속한 메시아 정도로는 믿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았다.<sup>87)</sup>

---

83) Ibid.,

84) Ibid.,

85) Ibid., 2장. 1절.

86) Ibid., 2장. 3절.

칼빈은 말씀이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근거가 되며 말씀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믿음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지각된다는 것이다.<sup>88)</sup>

또한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된 것이라고 말한다.<sup>89)</sup>

## 6. 회개(Repentance)

칼빈은 회개<sup>90)</sup>와 죄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논의가 회개와 죄 용서를 빠뜨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완전하며 거의 무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회개는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는 것은 경솔한 논증이라고 말한다.<sup>91)</sup>

칼빈은 믿음이 회개를 낳는 데에는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sup>92)</sup> 그리고 회개의 본질을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죽임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영혼의 슬픔과 두려움이라고 본다. 이것 이 회개의 첫번째 단계이며 보통 ‘통회’(contrition)라고 불린다.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으로 이해한다. 즉, 죄의식으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

87) Ibid., 2장. 5절.

88) Ibid.

89) Ibid., 2장. 7절.

90) 여기서의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좁은 의미의 회개이다.

91) Ibid., 3장. 1절.

92) Ibid., 3장. 2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며 용기를 회복하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살림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던 마음이 진정된 후에 받는 행복감으로 보지 않고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 곧 중생에서 생기는 소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sup>93)</sup>

칼빈은 율법 아래서의 회개와 복음 아래에서의 회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율법적인 회개는 죄인이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떨며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복음적 회개는 죄인이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양약과 두려움에 대한 위로와 불행을 피하는 피난처로 의지한다는 것이다.<sup>94)</sup>

칼빈은 회개를 정의하기를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향하는 것이며 회개는 옛사람과 육의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써 구성된다고 말한다.<sup>95)</sup>

## 7. 칭의(Justification)

칼빈은 칭의를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의 원리이자 모든 신앙의 근본이 되는 원리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얻는 것은 결코 중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죄사함을 얻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96)</sup> 또한 칼빈은 칭의는 중생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칭의와 중생을 단순한 병렬 관계로 두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또한 연대적인 관계로 놓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 하지도 않았다.<sup>97)</sup>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중은혜’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중은혜로서의 칭의와 성화의 개념은 구원론의 두 축으로서 중요하게 여긴다.<sup>98)</sup>

93) Ibid., 3장. 3절.

94) Ibid., 3장. 4절.

95) Ibid., 3장. 5절.

96) Fransis Wendel, op. cit., p. 280.

97) Ibid.

98) 고광필, “칼빈의 이중은혜의 논리”, 「칼빈과 개혁신학」, (광신대학교출판부,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되고 자신의 의로 인해 용납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와는 반대로 행위에 의한 의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타날 때에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다. 즉,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을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인 것이다.<sup>99)</sup>

성경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죄의 용서로 해석하며,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에서 분리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의롭다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롬8:33-34p, 행13:38-39, (눅18:14)<sup>100)</sup> 또한 칭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용납이며 죄의 용서라고 말한다. (엡1:5-6, 롬3:24)<sup>101)</sup>

## 8. 성화(Sanctification)

칼빈은 중생과 성화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중생을 파괴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102)</sup>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 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케 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들로서 자기에게 성별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 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103)</sup>

칼빈은 중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생 동안 어느 정도 죄인이며 이 죄는 회개으로써 보상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하

---

1999), p. 196.

99) John Calvin, 「한·영 기독교강요」(Ⅲ), 번역위원회 역, 11장. 2절.

100) Ibid., 11장. 3절.

101) Ibid., 11장. 4절.

102) Ibid., 3장. 9절.

103) Ibid.

여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완전한 자유를 지녔기 때문에 육신과 투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시험 받게 하는 영원한 전장에 남아 있게 하여 그들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여 줄 수 있다.”<sup>104)</sup>고 말한다. 성화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다.

칼빈은 성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보았다. “나는 우리가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결합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즐기는 성스런 연합을 지고한 것으로 찬미한다.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자신의 의를 분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몸에 접붙여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황송하게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배려를 베풀어 주셨다.”<sup>105)</sup>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mystica unio)라고 한다.<sup>106)</sup>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화의 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sup>107)</sup>

칼빈은 지상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주의 날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골1:22, 엡 1:4)는 말씀은 신자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해야 하나 이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완전히 결합할 때뿐이라는 것이다.

## 9. 견인(Perseverance)

아르미니안주의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한

---

104) Ibid., 3장. 10절.

105) Ibid., 3장. 10절.

106) 고광필, op. cit., p. 197.

107) Fransis Wendel, op. cit., p. 259.

다.<sup>108)</sup> 즉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한번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뜻에 의하여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한다<sup>109)</sup>.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므로 구원은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변함 없다는 것이다.<sup>110)</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설명하는 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하시고 자신의 영으로써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성화시키신 자들은 전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끝까지 그리고 확실하게 견인이 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빌1:6; 뱌후1:10; 요10:28; 요3:9; 뱌전1:5; 뱌전1:9) 성도들의 견인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고 불변의 사랑에서 나온 불변의 선택교리에 의하고(뱌후2:18,19; 뱌뱌31:3),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과 간구와 효과(히10:10; 히10:14; 히13:21; 히9:12-15; 롬8:33-39; 요17:11,24; 눅22:32; 히7:25), 성령과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일과 은혜, 언약의 특성에 의하는 것이며(요14:16,17; 요일2:27; 요일3:9), 이 언약에 의하여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한

---

108) 기독교대백과사전 V.10. (기독교문사,1983), p. 878ff 「아르미니우스, ~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칼빈주의의 몇몇 측면들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고, 종교개혁 신학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첫째 조항은 조건적 선택, 즉 선택된 자 안에 있는 신앙과 죄에 빠져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안에 있는 불신앙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의존하는 선택을 주장한다. 두 번째 조항은 대속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라는 보편적인 대속을 주장한다. 세 번째 조항은 인간이 구원의 신앙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즉 성령의 중생이 없이는 실제로 선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을 단언한다. 네 번째 조항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단계의 영적 삶에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한다. 다섯 번째 조항은 성령의 은총은 죄와 유혹에 대한 계속적 승리를 위해 충분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견인이 필연적이란 것은 의심스러우며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109) Deuan Spanser, op. cit., p. 89.

110) Ibid., p. 90.

다.(요10:28; 살후3:3; 요일2:19)<sup>111)</sup>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만연, 자신들을 견인케 하는 방편을 등한히 하는 일 등으로 인해서 가증한 죄에 빠질 수도 있으며(마26:70,72,74), 얼마동안 그 안에 계속 거함으로 인하여(시51:14)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고(사64:5,7,9; 삼하11:27) 성령을 근심케 하고(엡4:30)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의 은혜와 위안을 빼앗기게 되고(시51:8,10,12; 계2:4; 아5:2-4,6) 마음이 완악해지고(사63:17; 막6:52; 16:14) 양심이 상처를 당하며(시32:3,4; 51:8) 타인을 실족케 하다가(삼하12:14) 자신들에게도 세상적인 심판을 초래하게 한다(시:89:31,32; 고전11:32)고 말한다.<sup>112)</sup>

#### 10. 영화(Glorification)

인간의 육신은 사망한 후에 흠으로 돌아가서 썩어나(창3:19; 행13:36) (죽지도 아니하고 잠자지도 아니하는) 저들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는 본질을 소유하였기에 바로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간다(눅23:43; 전12:7). 그 때에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 중에서 온전하여지고 지극히 높은 천국에 영접이 되어서 그곳에서 저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되고 저들의 육신이 온전하게 구속되기를 기다리지만(히12:23; 고후5:1,6,8; 빌1:23; 행3:21),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지극히 어두운 상태에서 지나게 되며 대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된다(눅16:23,24; 행1:25; 유6,7; 벰전3:19).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두 곳 외에는 성경이 어느 곳도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살아 있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죽지 아니한 채 변화될 것이고(살전4:17; 고전15:52) 죽은 자는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른 몸이 아닌 똑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며, 부활한 육신들은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영원토록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욥19:26,27; 고전15:42-44). 불의한 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을 하여서 굴욕을 당하되 의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을 하여서 영광을 받으며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비슷하게 될 것이

---

111) 송종섭, 전상기, 송봉길 공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소망사, 1979), p. 71.

112) Ibid.

다.(행24:15; 요5:28,29; 고전15:43; 빌3:21).<sup>113)</sup>

### 제3절 웨슬리의 구원론

웨슬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당시의 영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의 구원론도 그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히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함으로써 성화에 강조를 둔다. 이런 웨슬리의 구원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설교들을 통해 그의 구원의 중심개념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1.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본질적 형상’(the natural image), ‘정치적 형상’(the political image), ‘도덕적 형상’(the moral image)이다. 본질적인 형상은 인간은 불멸하는 영혼 및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과 이 세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썩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정치적 형상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위의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도덕적 형상은 의와 진정한 거룩함의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그 전인격으로 일치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죄도 없었고 악도 알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sup>114)</sup> 웨슬리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읽는 성서의 말씀의 설명을 따르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본 따서 인간을 창조하자고 하시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

---

113) Ibid., p.129.

114)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에 대한 웨슬리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제10집」, 2000년도, p. 53.

되어 있습니다(창1:26,27). 하나님 자신의 불멸성의 모습, 즉 자연적인 형상을 따라 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의 자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또는 바다의 고기와 땅 위의 만물을 지배하는 이세상의 지배자인 정치적인 형상으로서,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의와 진실한 거룩함(엡 4:24)을 지닌 도덕적인 형상으로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사랑이 충만하였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사고와 언어와 행동의 유일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며, 인간은 이러한 창조자의 숨씨에 의해 창조된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이 순수하신 분이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모든 죄악의 오점으로부터 순결하였습니다.”<sup>115)</sup>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불변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이 시험에는 견딜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고 말한다.<sup>116)</sup>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완전한 율법을 주시고 이것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다(창2:16-17).<sup>117)</sup>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조물주를 창조주로 알아보며, 사랑하며, 순종함으로써 섬길 수 있는 능력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만약 이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인간도 진흙이나 돌 조각이상으로는 조물주를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sup>118)</sup>

또한 웨슬리는 본성적으로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은총으로는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인간 본성의 비관주의와 은총의 낙관주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다. 죄를 범한 어

---

115) John Wesley, “새로운 탄생”, 이계준 역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 2」,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9), p. 285.

116) Ibid., p. 286.

117) 이선희, op. cit., p. 53.

118) Ibid., p. 54.

편 사람이라도 그의 아들의 대속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본성의 타락을 치료받을 수 있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도덕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다.<sup>119)</sup>

## 2. 원죄(Original Sin)

웨슬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하고 불행하게 됨과 동시에 불결하게 되었고 말한다. 이로써 바로 악마의 형상인 교만과 아집에 빠지게 되었고 멸망할 짐승의 형상인 관능적 욕구와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영적인 죽음으로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는데 이것이 모든 인류와 사람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자연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sup>120)</sup> 특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여 의와 거룩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되었고, ‘본질적 형상’도 왜곡되어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그의 이해력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며, 정치적 형상도 비뚤어져 버렸다는 것이다.<sup>121)</sup>

웨슬리는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죽음, 영적인 죽음, 죄 속에서의 전적인 죽음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전적으로 상실하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의와 성결을 상실한 채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한다.<sup>122)</sup>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죄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원래 충성된 관계를 깨뜨린 불순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적 발의가 대치되고 예배되어짐으로 교만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여 믿음으로만 걷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방법과 욕망으로 걷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23)</sup>

---

119)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p. 81.

120) John Wesley, “새로운 탄생”, 이계준 역 「존 웨슬리 표준설교집」 (2), p. 287.

121) 野呂芳男, 「존·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김덕순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8), p. 336.

122) John Wesley, “새로운 탄생”, 이계준 역, op. cit., p. 288.

123) Paul A. Micky, 「웨슬레신학의 요점」, 라영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



웨슬리는 그의 “원죄”라는 설교에서 인간이 본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창6:5 말씀“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을 들어 설명한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악하다고 말한다.<sup>124)</sup> 이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마음의 생각들 즉, 영혼 속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 일체의 성향, 감정, 걱정, 욕구, 또한 모든 기질, 계획, 사상, 이 모두가 다 포함해서 악하다고 말한다.<sup>125)</sup> 그리고 이런 인간의 악은 중단되어지지 않고 항상 악해서 결코 선을 지향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126)</sup>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도 역시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헛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우매하고, 죄 되고, 사악하다고 말한다.<sup>127)</sup>

웨슬리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원죄라는 병에 걸려 있어서 세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이다.<sup>128)</sup> 웨슬리는 그의 초기 복음주의적인 설교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자연인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이 타락은 원죄의 결과이고, 인간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129)</sup>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신앙을 주심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에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 교만과 아집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sup>130)</sup>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원죄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이다.<sup>131)</sup>

사, 1985), p. 91.

124) John Wesley, “원죄”, 이계준 역, op. cit., p. 269.

125) Ibid., p. 270.

126) Ibid., p. 271.

127) Ibid., p. 272.

128) Ibid., p. 278.

129) H. Lindström, 「웨슬레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1984), p. 35.

130) John Wesley, “원죄”, 이계준 역, op. cit., p. 281.

131) “산상설교(XII)”, Ibid., p. 101.

### 3. 선행하시는 은혜(Preventing or prevenient Grace)

선행하시는 은혜는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역사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자연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심을 가르킨다. 이 은총은 인간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며, 따라서 웨슬리는 실존적 인간치고 전혀 은총을 받지 못한 자연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먼저 인간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32)</sup>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에서 선행하시는 은총을 설명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다든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sup>133)</sup>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적 은총에 의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한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였다.<sup>134)</sup>

웨슬리는 선행하시는 은혜를 설명하기를 이 능력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타고난 양심과 같은 것으로 보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재능 위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이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치시는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에게 선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빛과 상반된 길을 걸을 때마다 불안을 일으키신다고 말한다.<sup>135)</sup>

### 4. 죄를 확신시키는 은혜(Convincing Grace)

웨슬리는 인간이 선행하시는 은혜에 의해 눈멀고 무딘 마음 곧 하나님과 그

---

132) John Wesley,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조종남 편 「요한웨슬레 설교선집 I」, (서울: 도서출판청과, 1994), p. 74.

133) 이것을 바로 번역하면 ‘최초로 동터오르듯이’이다. (the first down of light)

134) Ibid., p. 79.

135) H. Lindström, op. cit., p. 63.

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흔히 성경에 '회개'라고 말하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sup>136)</sup>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된 뜻, 특히 율법을 가르치신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때 약속하신 복을 이루시고, 이 율법을 어기면 징죄와 처벌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또한 인간은 원죄로 인한 무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일치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신다. 율법의 가르침과 명령에 의해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을 율법적 회개(Legal Repentance)라고 한다.<sup>137)</sup>

율법은 죄와 인간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게 한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며, 죄인을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영벌의 처벌을 알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일념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므로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웨슬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회개시키시는 은혜라고 부른다.<sup>138)</sup> 그리고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깨달은 나머지 모든 죄에서 거룩한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자기 의를 신뢰하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복음적 회개(Evangelical Repentance)라고 한다.<sup>139)</sup>

##### 5. 칭의 하시는 은혜(Justifying Grace)

칭의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로 인도된 사람이 믿음 받기를 사모하게 될 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말한다. 칭의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이다. 인간 편에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

136) Ibid., p. 80.

137) 김홍기, op. cit., p. 120.

138) 이선희, op. cit., p. 74.

139) 김홍기, op. cit., p. 121.

것이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에 의존한다.<sup>140)</sup>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서 이 믿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믿음과 구별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이교도의 신앙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교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믿고 선악간의 행위에 대하여 이성의 도덕을 따라 보상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sup>141)</sup> 둘째 마귀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말한다. 마귀의 신앙은 이교도의 신앙보다는 훨씬 앞섰다. 마귀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 보상하시며, 의로우사 죄를 심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귀의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는 데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다. 세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의 가졌던 믿음과 다르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고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되어 병자들과 각종 질병을 고쳤고 악마를 제어할 능력과 권위를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다.<sup>142)</sup>

웨슬리는 이 믿음을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대속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43)</sup>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는 구원은 첫째로 현재의 구원이요, 둘째는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세제는 자범죄의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네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해방이요 하나님과 화해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 다섯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

140) William R. Cannon, 「웨슬리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p. 132.

141) John Wesley,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조종남 편, op. cit., p. 16.

142) Ibid., p. 17.

143) Ibid., p. 18.

터의 해방이다.<sup>144)</sup>

웨슬리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그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을 칭의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를 믿은 죄인에게 이루어지는 죄책과 형벌에서의 해방을 뜻하며, 또한 그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145)</sup>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성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웨슬리는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즉 신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첫째는 믿음이다. 이것은 다른 표적들의 터전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다.<sup>146)</sup> 즉 단순한 동의 곧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 하시는 내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죄가 용서되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해되는 것을 뜻한다.<sup>147)</sup> 이 믿음의 열매는 죄를 이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평안이다.<sup>148)</sup>

둘째는 소망이다. 이 소망은 두 가지를 암시하는데 하나는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영혼이나 양심의 증거를 뜻하고 둘째는 주로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다.<sup>149)</sup>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자기를 성결케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기다리며 성령의 증거하심을 믿고 온갖 시험과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sup>150)</sup>

---

144) 이선희, *op. cit.*, p. 76.

145) John Wesley,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마경일 역,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1), p. 21.

146) John Wesley, “신생의 표적”, 조중남 편, *op. cit.*, p. 32.

147) *Ibid.*, p. 33.

148) *Ibid.*, p. 36.

149) *Ibid.*, p. 37.

150) 이선희, *op. cit.*, p. 78.

세째는 사랑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세 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생한 사람에게는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이다.<sup>151)</sup>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써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필연적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52)</sup>

#### 6. 성화 시키시는 은혜(Sanctifying Grace)

웨슬리는 중생할 때 더 이상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범죄의 행위 때문에 생기는 죄책과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록 외적인 죄는 범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가 자리잡고 있어서 신자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 내적인 죄는 중생함으로 시작되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특히 성화의 과정에서 체험되는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를 통하여 전부 씻김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즉 칭의를 받아 신생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어 온전한 성화의 단계를 체험하며, 그 후로도 성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말한다.<sup>153)</sup>

웨슬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하기 전의 회개와 구분되어지는 ‘신자의 회개’(Repentance of Believers)이다. 신자는 성령의 깨우침에 따라 아직도 자기 속에 남아 있는 내적인 죄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을 깨달아야 하며 성결케 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성화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장성하여 온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sup>154)</sup>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는 일을 멈추면 그 순간에 의인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자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에서 순간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

---

151) John Wesley, “신생의 표적”, 조종남 편, op. cit., p. 40.

152) Ibid., p. 41.

153)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Ibid., p. 107.

154) “신자의 회개”, Ibid., p. 129.

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성화 도상에 있는 신자의 끊임없는 회개의 필연성이 있다는 것이다.<sup>155)</sup>

또한 웨슬리는 성화에 있어서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남아 있는 악의 세계에서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신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이요, 동시에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sup>156)</sup>

온전한 성화를 받은 성도도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실수로 무의식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계속 필요로 하는 것이다.<sup>157)</sup>

웨슬리의 신학사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웨슬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은 계속 성화 되며 완전을 추구하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명제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게 된 것이다.<sup>158)</sup>

웨슬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위에 사는 동안 무지로부터 아주 해방될 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sup>159)</sup> 둘째로, 사람은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실수를 범하지 않지만 구원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빈번한 실수를 범한다는 것이다.<sup>160)</sup> 셋째로, 인간은 연약성(한계성, infirmities)으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다. 이 연약성은 신체상의 연약성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격에 속하지 않는 내적, 외적 불완전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sup>161)</sup> 넷째로,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기대

---

155) 野呂芳男, op. cit., p. 451.

156) John Wesley, “신자의 회개”, 조종남 편, op. cit., P. 129.

157) Ibid., p. 130.

158) “그리스도의 완전”, Ibid., p. 171.

159) Ibid., p. 174.

160) Ibid., p. 176.

161) Ibid.

할 수 없다. 그런 완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구속을 발견하여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고 당분간은 아무 시험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상태가 늘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끝까지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신자도 시험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sup>162)</sup>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지도 없고 실수도 없으며 연약성도 없고 유혹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진정으로 성결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말한다. 거룩한 자는 누구든지 성경 적인 의미에서 완전하지만 절대적인 완전이란 이 땅 위에 없는 것이다. 완숙한 완전(perfection of degrees)이란 없으며 계속적인 성장을 허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완전은 없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죄를 계속 범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기 때문이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죄(outward sin)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다.<sup>163)</sup> 이것은 율법을 외적으로 범하는 것을 중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느니라”(벧전4:1,2)<sup>164)</sup>

두 번째로, 악한 생각이나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 주님께서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셨기에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악하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눅6:40) 또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은 모든 죄된 성품으로부터 해방되셨던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된 성품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sup>165)</sup>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외적인 죄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로부터도 구원하

---

162) Ibid., p. 179.

163) Ibid., p. 180.

164) Ibid.

165) Ibid., p. 195.



신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불의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요, 죄를 짓지 않으며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말한다.<sup>166)</sup>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사랑이 나의 기질과 언행심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완전의 열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완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사랑이다.<sup>167)</sup>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소극적 의미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sup>168)</sup> 적극적 의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39)는 황금율이 우리들의 삶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sup>169)</sup>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완전한 성화란 정착된 상태가 아니라 부단한 과정을 말한다.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인 죄 때문에 완전한 신자라도 계속적으로 순간 순간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sup>170)</sup>

## 7. 영화(Glorification)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 세상은 폐하여지며, 땅의 몸이 하늘의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중생하여 성화의 길을 간 성도들은 약속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한다.<sup>171)</sup>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현재의 의인 혹은 현재의 구원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극적인 의인과 종극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화는 의인의 조건이 아니며 현재의 의인은 인간자신의 아무런 거룩함도 없이 믿음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후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화가 최

---

166) Ibid., p. 198.

167) 이선희, op. cit., p. 82.

168) 野呂芳男, op. cit., p. 474.

169) Ibid., p.477.

170) 김홍기, op. cit., p. 178.

171) 이선희, op. cit., p. 83.

후 심판 날의 궁극적인 의인의 조건이 된다고 본다. 즉 성화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72)</sup>

지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완전은 상대적이지만, 천상에서 경험되는 영화는 절대적 완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영화는 의식적인 죄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죄까지도 사함 받는 상태이며, 무지, 실수, 연약함, 유혹에서마저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sup>173)</sup>

#### 제4절 비 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은 커다란 공통점과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복음주의 구원론의 뼈대이며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종교개혁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

#### 1. 공통점

##### 가. 구원론에 있어서의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복음주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 모두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루터에게 성경은 신앙과 구원에 관한 단 하나의 무오한 권위로 여겨졌다. 이러한 견해가 있었기에 교황, 교회 회의, 면죄부, 로마 카톨릭 성례전 등의 권위를 거부할 수 있었다. 루터는 말하기를 신앙의 조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립되어야 하며, 다른 그 어느 것도 심지어 천사라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증거이기 때문에 권위적이며 성경을 성령하나님에 의해 교회에 주어진 책이라고 하였다.<sup>174)</sup>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고 그의 구원론의 모든 진술들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칼빈 역시 교회가 아닌 성경을 종교적 문제의 최종적 권위로 인정한다. 그는

---

172) H. Lindström, op. cit., p. 138.

173) 김흥기, op. cit., p. 182.

174) Paul Enns, op. cit., p. 587.

성경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 대한 강력한 권위로 보았다. 칼빈은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의 예외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말한다.<sup>175)</sup> 이것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의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만, 신학의 모든 내용을 진술하고 정리하려는 성경적 신학의 태도를 가지려 했다.<sup>176)</sup> 그는 주에 대한 모든 일을 탐구할 때 주의 말씀만이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며, 눈을 비취주는 빛이 된다고 말한다.<sup>177)</sup>

웨슬리 또한 「신약성경 주해」 서문에서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각 부분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부분들은 서로 합하여 온전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더함도 덜함도 없다고 말한다.<sup>178)</sup>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에 근거한 절대적 권위, 무오성, 충족성을 말하는 것이다. 웨슬리 역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신학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웨슬리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모든 교리의 토대를 세우려고 항상 노력했다. 특히 완전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은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주장하였다.<sup>179)</sup>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구원론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원죄

루터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말하기를 원죄는 인간의 의지 속에 들어 있는 내적인 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나 나가서 지성에 있어서 내적 빛이나 기억력의

---

175) Ibid., p. 588.

176) 김재성, 「칼빈과 개혁 신학의 기초」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P. 150.

177)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 (III), 21장. 2절.

178) Charles W. Carter, 「현대 웨슬리 신학 I」, 김영선의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 561. 여기에서 이 문장을 “웨슬리는 신약성경 주해 서문에서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성경의 각 부분은 하나님이 가치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은 온전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결함이나 과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번역한 바, 위와 같이 번역해야 그 뜻이 명백히 나타난다.

179) Leo George Cox, 「존 웨슬리의 완전론」, 김덕순 역 (서울: 도서출판은성, 1997), P. 13.

결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 전체 즉, 인간의 모든 것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가 결여된 것을 말하며 그 전체 인간의 기능을 올바르게 발휘할 능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sup>180)</sup> 루터는 이 원죄가 모든 죄의 모태가 되었고 육신의 법이며 우리 인간 본성의 약점이 되었고 병든 인간의 시조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고대 교부들의 말에 동의한다. 육체의 병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몸의 각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 전부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온갖 마음도 약해져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힘이 약화되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들을 다 경멸해 버리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만을 열망하게 된다고 말한다.<sup>181)</sup>

칼빈은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무력하게 되었고 또 그가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오염이 인류 전체의 본성에 미쳤다고 보았다.<sup>182)</sup>

웨슬리는 모든 인간의 선은 결핍되었으며 악한 행위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성의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까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고 말한다.<sup>183)</sup> 즉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으며 불의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육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 전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육신 속에는 그의 본성적인 상태 속에는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들이 악하며 오직 악하며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한다.<sup>184)</sup>

따라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같은 인간이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해져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80) Martin Luther, “로마서 강해”, 지원용 편 「루터선집 제4권」(루터와 신약<Ⅱ>), p. 247.

181) Ibid., p. 248.

182)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 Ⅱ권. 1장. 7절.

183) John Wesley, “원죄”, 이계준 역 「존 웨슬리 표준설교집」(2), p. 279.

184) Ibid., p. 280.

#### 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루터나 칼빈, 웨슬리에게서도 ‘이신칭의’에 대한 분명한 합일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행위가 배제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얻어진다는 점에 대해 루터, 칼빈, 웨슬리는 같은 입장을 취한다.

루터는 칭의를 오직 믿음이라는 조건 위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또한 사람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선물 자체인 내적인 의로 여겼다.<sup>185)</sup> 루터는 칭의에 있어서 어떤 외적인 공적이나 행위를 철저히 배격한다. 공적 없이 신앙만에 의하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참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고 모든 축복으로 충만케 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이른다<sup>186)</sup> 또한 루터는 칭의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부와 신랑과의 결혼으로 설명한다. 즉, 믿는 성도는 그의 신앙을 담보로 하여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며,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up>187)</sup>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轉嫁)라고 말한다.<sup>188)</sup>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한다.<sup>189)</sup> 칼빈은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한다.<sup>190)</sup> 이것은 루터의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결혼비유와 같은 내용이다.

웨슬리 또한 사람이 믿음을 통한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sup>191)</sup> 웨슬리는 칭의의 성

---

185) William R. Cannon, op. cit., p. 112.

186)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지원용 역 「종교개혁의 3大 논문」, p. 303.

187) Ibid., p. 308.

188)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11장. 2절.

189) Ibid., 11장. 1절.

190) Ibid., 15장. 5절.

서적인 명백한 견해가 사면이요 죄의 용서라고 말한다.<sup>192)</sup> 웨슬리는 칭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지난 죄를 용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sup>193)</sup>

따라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칭의의 조건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죄 용서와 하나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공통된 칭의관을 갖는다.

#### 라. 믿는 자의 회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다. 즉 죄사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의로우며,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있어서 그의 인간적인 탐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다.<sup>194)</sup> 그래서 신자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sup>195)</sup>

칼빈은 신자들이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 생활에서는 죄를 떠난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지만 육신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전연 느끼지 않으리만큼 충분히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sup>196)</sup> 즉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으나 여전히 내재한다고 말한다.<sup>197)</sup>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온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순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평생동안 줄곧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날 것임을 알게 하신다고 한다.<sup>198)</sup> 신자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는 오래 전에 사장된 것이

191) William R. Cannon, op. cit., P. 112.

192) John Wesley, “신앙에 의한 의인”, 마경일 역, op. cit., p. 88.

193) William R. Cannon, op. cit., p. 114.

194) Paul Althaus, 「마르틴 루터의 신학」,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4), p. 342.

195) Ibid., p. 344.

196)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3장. 10절.

197) Ibid., 3장. 11절.

198) Ibid., 3장. 9절.

라도 기억되고 고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99)</sup>

웨슬리 역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마음이 남아 있는데 이 마음은 타락의 경향성이 있는 마음, 아직도 계속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이며 자만, 고집, 분노, 복수심, 세상사랑 또는 온갖 악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이 비취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고, 신자들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라는 것이다.<sup>200)</sup>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히 그 시작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01)</sup>

따라서 세 사람 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신자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고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 마. 성화

루터의 후예들 속에서 정숙주의와 율법폐기론이 나오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성화가 없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루터는 선행이 신앙 자체에서 나오며 신앙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한다고 말한다.<sup>202)</sup>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은 영에 있어서 신앙에 따라 내적으로 풍부하게 그리고 충분히 의롭게 되는 고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 신앙과 이 부는 내 생애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sup>203)</sup> 루터는 이러한 공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신앙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은 모든 것 특히 그 자신의 몸이 정화되어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

199) Ibid., 3장. 18절.

200) John Wesley, “신자의 회개”, 조종남 역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I), p. 136.

201) Ibid., p. 131.

202) Martin Luther, 지원용 역, 「루터선집 제4권」 <루터와 신약(II)>, p. 46.

203) Ibid., p. 319.

사랑하고 찬미하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몸에 필요한 것이 그를 강제하고 또한 그의 몸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계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204)</sup> 이것은 신앙에 의하여 성별된 크리스찬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 선행이 그를 더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더 크리스찬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다.<sup>205)</sup> 논자는 루터가 칭의 받은 이후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하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값없이 우리의 몸과 행동을 통하여 이웃을 도와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동일한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고,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하여 개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그리스도(참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6)</sup>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홍기는 그의 저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말하기를 루터는 그의 후기 저술들 속에는 계속 행함과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되기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만의 칭의론에 근거하여 수직적으로 수동적으로 은총과 믿음이 옷 입혀지는 수동적 영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루터는 원치 않았지만 그의 후예들 속에서 정숙주의와 율법 폐기론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다.<sup>207)</sup> 이것은 루터의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물론 루터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적 무능력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받는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공적이나 행위도 배격한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선행이나 성화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루터에게 있어서의 성화는 더욱 철저하다고 볼 수 있다. 루터는 성화에서도 역시 인간의 모든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

---

204) Ibid., p. 320.

205) Ibid., p. 322.

206) Ibid., p. 333.

207) 김홍기, op. cit., p. 156.



로서의 공적이나 선행은 부정한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로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김홍기는 웨슬리가 루터의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이후의 행함을 강조했다.208) 즉 성화에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서적 구원의 길”에서 믿음이 성결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 웨슬리는 성화에서도 믿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루터의 성화론과 웨슬리의 성화론은 같다.

칼빈은 성화의 동기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성경의 명령을 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셨는데 거룩함이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9) 또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라고 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친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그 모범을 우리의 생활에서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는 것이다.210) 그는 성화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자기부정이라고 본다. 신자는 신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자기 능력의 온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도록 자신을 떠나는 것이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이성에게 성령에 양보하며 항복하며 복종하라고 명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셔서 지배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211) 자기부정은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하며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 준다고 말한다.212)

---

208) Ibid., p. 157.

209)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6장. 2절.

210) Ibid., 6장. 3절.

211) Ibid., 7장. 1절.

웨슬리는 그의 설교 “신생의 표적”에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즉, 세 가지 표적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는 세 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 사랑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에 부어졌다고 설명한다.<sup>213)</sup>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필연적인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영혼 곧 원수와 꾀박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14)</sup>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곧 마음으로도든 행동으로도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마음과 생활 모두에서의 순종이며, 모든 성품과 언행에 있어서의 순종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분명한 성품의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히 되는 것이라고 한다.<sup>215)</sup>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선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소비하기를, 또 소비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의인의 부활로서 만족스러운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sup>216)</sup> 웨슬리가 보는 성화에 있어서의 선행과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해하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웨슬리도 칼빈과 마찬가지로 성화에 있어서 자기부정을 강조한다. 신자는 누구나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부정에 대한 이유를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능력과 기능에 있어서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며 다른 나머지 모든 것과 동일하게 타락한 의지도 전적으로 본성적인 타락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 반면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타락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것은 하

---

212) Ibid., 7장. 3절.

213) John Wesley, “신생의 표적” 조종남 역, op. cit., p. 40.

214) Ibid., p. 41.

215) Ibid., p. 42.

216) Ibid., p. 43.

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자기 부정의 깊은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sup>217)</sup>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 곧바로 인도하는 길인데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뜻과 전혀 반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sup>218)</sup>

따라서 이들의 성화론은 전체적으로 많은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칭의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세 명 다 성화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의 선행과 행위는 성화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칭의 받고 중생을 얻은 신자들의 성화의 증거로서 보고 있다. 성화에 있어서도 칭의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유일한 조건으로 주장된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주권 적인 역사 하심인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순종에는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서 표현된다고 본다.

## 2. 차이점

### 가. 예정

예정론은 칼빈과 웨슬리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적 차이를 보인다. 이 예정의 교리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분리되게 되었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대화의 벽을 만들고 말았다. 칼빈은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자신과 계약하셨다고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각 사람이 이 중의 어느 한 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생명 아니면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본다.<sup>219)</sup> 이것을 비판한다면 칼빈의

---

217) “자기부정”, Ibid., p. 343.

218) Ibid.

이중 예정설은 첫째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나 이유나 신앙이나 선행 없이 구원을 하시는 것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시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해치는 일이다. 둘째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말대로 칼빈의 이중예정설은 인간의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sup>220)</sup> 칼빈의 말대로라면 인간을 프로그래밍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게 계획하셨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칼빈의 이중예정설은 성경말씀에 위배된다. 물론 성경은 예정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이해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했다는 이중예정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넷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위배된다. 만약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이중예정설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수정되어야 한다.

웨슬리는 어떤 자는 영원한 멸망에, 어떤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중적으로 예정되었다는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웨슬리는 조건적 일반예정(conditional general predestination)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의 조건이 붙는 예정을 말한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될 것이다.”(막 16:16)를 근거로 하여 조건적 선택을 주장한다. 모든 것이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 하시기에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세 전에 그리스도를 어린양으로 부르시듯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도들을 부르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선택받으려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21)</sup>

219)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21장. 5절.

220) 기독교대백과사전 V.10. p. 880.

221) 김홍기, op. cit., p. 100.

#### 나.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감리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대한 위탁물이며 이것을 보급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고 말한다.<sup>222)</sup>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교리이며 독특한 교리이다.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후의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취할 수 있는 보다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이와 반면 루터에게 있어서 죄사함이란 동시에 인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고상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루터는 인간의 의지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변화는 불완전한 시작이며 이것은 즉 인간이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고 죄의 선고와 형벌로부터 놓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완전히 의롭다 할 수 있으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자가 현세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보았다.<sup>223)</sup> 루터와 칼빈은 윤리적인 완전은 죽은 뒤에 온다고 생각했으나 웨슬리는 완전성화가 지상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sup>224)</sup> 여기에는 완전이라는 용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견해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성도들에게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데 이 완전성에는 성실하고 겸손하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을 뿐 실제로는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sup>225)</sup>

#### 다. 불가항력적 은혜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아무도 번개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물론 하나님의

---

222) H. Lindström, op. cit., p. 143.

223) Ibid., p. 152.

224) Ibid.

225) John Calvi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17장. 15절.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는 순간들이 있기는 할지라도, 일반적으로는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저항할 수 있다는 아르미니우스의 입장을 취한다.<sup>226)</sup>

그러나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5개 원리 가운데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간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거부한다.<sup>227)</sup> 그 이유는 웨슬리는 인간이 믿음에 의한 칭의 이전에는 본성이 전적타락과 전적 무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본래 병들었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살리시기 전에는 인간이 무슨 일이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sup>228)</sup>라고 한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므로 우리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동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것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치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듯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이다.<sup>229)</sup>

#### 라. 대속의 범위

칼빈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만을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를 주장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만을 구원하기로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고 보았으며, 그리스도는 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

---

226) 이선희, *op. cit.*, p. 67.

227) *Ibid.*, p. 66.

228) John Wesley,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조종남 편, *op. cit.*, p. 83.

229) *Ibid.*, p. 81.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30)</sup> 반면 웨슬리는 그리스도는 만인의 속죄를 위해 죽으셨고 따라서 만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즐기는 것이라는 보편적 속죄(Universal atonement)를 말한다.<sup>231)</sup> 즉 그리스도의 대속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며 만인을 위해 계획되었고 만인을 위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대속은 어떤 사람의 구원도 현실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케 하였으며 따라서 그 결과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sup>232)</sup>

#### 바. 구원의 순서(*Ordo Salutis*)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의 차이는 곧 그들의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차이를 반영한다.

##### 1) 루터의 견해

루터는 선택이나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의 교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로 출발점을 삼지는 않는다. 구속 사역에 주관적인 실현이 신적 은혜의 사역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순서를 묘사함에 있어서 하나님 편보다는 사람 편에서 행해진 것에 강조점을 둔다. 신앙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만 동시에 특별히 사람 안에 있는 능동적 원리나 사람의 활동으로 간주된 신앙을 구원의 순서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삼는다.<sup>233)</sup>

루터의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34)</sup>

말씀(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 - 신앙의 시작 - 죄인임을 인정함 - 복음을 요청

230) 기독교대백과사전, op. cit., p. 880.

231) 김홍기, op. cit., p. 86.

232) 기독교대백과사전, op. cit., p.880.

233) L. Berkhof, 「뵘콥조직신학 제5권 구원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p. 20.

234) cf.,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지원용 역 「종교개혁 3대 논문」, pp. 277~339.

- 신앙이 생김으로 칭의 받음 - 믿는 자의 선한 삶을 살아감(성화) - 영화

## 2) 칼빈의 견해

개혁과 신학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의 신분 즉 그의 율법에 대한 관계에 의거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적 의(義)의 기초 위에서만 죄인이 능히 죄의 부패하고 과멸하는 영향력에서부터 구출될 수 있다는 가정 위에서 진행된다. 구원의 시작을 그리스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 사이의 ‘구속의 언약’에서 성립된 신비적 연합에 두고 있다.<sup>235)</sup> 그들은 구원의 순서를 중생이나 소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의 적용이 그 시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심은 회개와 신앙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앙은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별되게 취급한다. 칭의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두기 때문에 성화의 사역이 그 다음에 고찰된다. 그리고 성도들의 견인과 최종적 영화의 교리로 종결된다.<sup>236)</sup> 칼빈의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정 - 소명 - 중생 - 믿음 - 회개 - 칭의 - 성화 - 견인 - 영화

## 3) 웨슬리의 견해

웨슬리는 루터, 특히 칼빈의 구원론의 출발인 예정의 은총을 강조하지 않고 선행하시는 은혜를 강조한다.<sup>237)</sup>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는 선재적 은총으로 시작되어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함에 이른다.<sup>238)</sup>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sup>239)</sup> 이것은 확신의 은총으로 말미암는다. 그 다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칭의와 중생이 온다. 전자는 죄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나 후자는 타고난 죄의 권세로부터의

---

235) L. Berkhof, op. cit., p. 16.

236) Ibid., p. 17.

237) 김흥기, op. cit., p. 222.

238) H. Lindström, op. cit., p. 128.

239) Ibid., p. 129.



해방을 의미한다.<sup>240)</sup> 그 후 계속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도달하고 마지막 곧 영화에 들어간다.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sup>241)</sup>

선행하시는 은혜 - 회개시키시는 은혜 - 칭의하시는 은혜 - 성화시키시는 은혜  
- 영화

---

240) Ibid.

241) 이선희, *op. cit.*, p. 83.

### 제3장 결 론

#### 제1절 결 론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복음주의 구원론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진다. 첫째, 성경을 모든 신학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원칙이면서 복음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의 영감은 기계적인 받아쓰기가 아니라 성경의 책들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각각의 장소와 시대에 있어서 그들이 쓴 단어들을 선택하고 내용들을 선택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경을 신앙과 실천을 위한 무오하며 권위 있는 안내자로 인정한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그 증언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무오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적절하고 규범적이며 전적으로 신뢰할만한 표현으로 본다.<sup>242)</sup> 이러한 성경관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도 성경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루터, 칼빈, 웨슬리 역시 그들의 구원론을 성경에서 시작하며 모든 논증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구원론은 성경중심의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적이고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존재로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인에 대해 사랑과 연민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구속하는 계획을 자신의 주권적 자유의지로써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 구원의 계획은 미리 정해진 것이지만,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셋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구원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참회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믿는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

---

242) R.V. Pierard, "Evangelicalism", in: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4, p. 379.

서되고, 중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다는 것이다.

네째, 성화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음주의는 말씀과 삶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화 역시 복음주의 구원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섯째, 인간의 전적타락과 무능력함을 강조한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도 능력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주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종교개혁정신에 입각한 성경적 구원론이며 인간의 전적타락과 무능력을 전제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는 구원론이다.

## 제2절 제언

복음주의 구원론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루터, 칼빈, 웨슬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작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정, 그리스도인의 완전, 불가항력적 은총과 대속의 범위, 구원의 순서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교파와 교단의 분리를 가져왔다. 오늘날 이러한 차이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의 대립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구원론이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모두 성경을 가장 중요한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신학적 용어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점들을 신학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복음주의 구원론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지고 통일성을 가진 성경적인 구원론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파마다 자기들의 신

학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다른 입장들을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성경을 토대로 대화의 창구들을 열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일차 문헌

Calvin, John.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Ⅱ)」. 서울: 기독교성문출판사, 1996.

\_\_\_\_\_ . 번역위원회 역. 「한·영 기독교강요(Ⅲ)」. 서울: 기독교성문출판사, 1996.

Luther, Martin. 지원용 편. “로마서를 위한 서문” 「루터선집 제4권」 서울: 컨콜디아사, 1986.

\_\_\_\_\_ . 지원용 역. “크리스찬의 자유” 「종교개혁 3대 논문」 서울: 컨콜디아사, 1997.

Wesley, John. 마경일 역.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1)」.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부, 1999.

\_\_\_\_\_ . 이계준 역. 「존 웨슬리 표준 설교집(2)」.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부, 1999.

\_\_\_\_\_ . 조종남 편.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 I」. 서울: 도서출판청과, 1994.

### 2. 이차 문헌

#### 1) 국내문헌

고광필. “칼빈의 이중은혜의 논리”.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김선도 외.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 서울: 웨슬리 복음주의협의회, 1992.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경기: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손석태 외. 해원정규오목사은퇴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칼빈과 개혁신학」.

광주: 광신대학교출판부, 199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2) 번역서

Althaus, Paul. 구영철 역. 「마르틴 루터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Berkhof, L. 고영민 역. 「뵘콥조직신학 제5권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사, 1996.

Cannon, William R. 남기철 역. 「웨슬레 신학」.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6.

Cox, Leo George. 김덕순 역. 「존 웨슬리의 완전론」. 서울: 은성출판사, 1989.

Carter, Charles W. 김영선의 공역. 「현대웨슬리 신학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Dieter, Melvin E.외, 김원주 역. 「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Erickson, Millard J. 김광렬 역.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Enns, Paul. 최치남 역. 「신학 핸드북」.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9.

Lindström, H. 전종욱 역. 「웨슬레와 성화」.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4.

Macglas Alist. 신상길. 정성욱 공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Micky Paul A. 라영복 역. 「웨슬레신학의 요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Spanser, Deuan. 신청기 역. 「칼빈주의 5대교리」, 서울: 성도출판사, 1981.

Wendel, Fransis. 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서론」.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7.

野呂芳男, 김덕순 역. 「존·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8.

## 3. 일반논문

목창균, “복음주의란.” 「온세상 위하여」. 경기: 오메가선교회, 2000. 4월호.  
이상화, “미국 복음주의 신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 확립  
의 과제.” 「제35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집」 2000.  
이선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1997년 개정판) “제2장 교리” 에 대  
한 웨슬리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신학과 현장」 제10집 2000.

#### 4. 사전

기독교대백과사전 V.10. 서울: 기독교문사, 1983.

Pierard, R. V. "Evangelicalism", in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4.

# ABSTRACT

A Study on Doctrine of Salvation of Evangelicalism  
(Comparative study of Doctrines of Salvation  
between M. Luther, J. Calvin and J. Wesley)

Kim, Su Min  
Department of System Theology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In the present thesis, the salvation doctrines of Luther, Calvin and Wesley, who are the most representative figures of evangelism, are compared to clarify what evangelical doctrine of salvation is.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to study the evangelical doctrine of salvation as well as the objectives and scopes of the research. In the main discourse, we investigate each of the salvation doctrines of Luther, Calvin and Wesley, and examine the common points and distinct points among them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The conclusion defines what the evangelical doctrine of salvation implies based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salvation doctrines we have examined.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vangelical doctrines of salv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y rely on the authority of the Bible. Evangelists believe that the Bible is God's revelation written by God's inspiration. Second, they emphasize the total corruption and inability of human beings as



well as God's absolute sovereignty power. Human beings do not have a chance or power to save themselves at all because they have been fallen out of their sin. Therefore, salvation cannot be brought in by the ability of human beings, and may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initiative work of the living God for the cause of his freely given grace. This is the key of the evangelical doctrine of salvation. Third, they emphasize the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by faith. The evangelists insist that the only condition to be justified is faith, excluding any merits and works of human beings. Sanctification is also understood to be achieved not by humanly toils and labors but only by faith that obey and respond to God's work of sovereignty. That is, only by faith, people are forgiven for their sins, born again, justified, and sanctified.

Consequently, the evangelical doctrine of salvation is a biblical one based on "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Christo",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assuming the total corruption and inability of human beings as well as emphasizing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rough God's initiative grace.